

# 북스

## Books

### '하우투리드' 시리즈

#### 10권 국내 번역 출간

영국 그란타 북스(Granta Books)의 '하우투리드(HOW TO READ)' 시리즈 1차분에서 10권이 국내에 번역·출간됐다.

1차분은 다루고 있는 것은 다윈, 셰익스피어, 히틀러, 프로이트, 데라보에 지책(라캉 편), 레이 몽크(비트겐슈타인 편), 키스 안셀 피어슨(니체 편) 등 세계적 석학.

국내 번역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김병화, 이다희, 고병권, 서정은 등 '연구공간 수유+너머'의 연구원들이 주로 참여했다. <웅진지식하우스·각 권 9천원>



# 건축, 삶과 문화를 말한다

## 행복의 건축 알랭 드 보통/ 딸과 함께 떠나는 건축 여행 이용재 지음

현대사회에서 '건축'은 인간과 떼어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 놓쳐 버리기 쉽지만 고단한 일상을 어루만지고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집'도, 가끔씩 둘러 예술의 향취를 느끼고 돌아오는 '미술관'도, 곳곳에 포진한 '관광사'도, 사람들이 오고가는 도시의 '거리'도 모두 '건축'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인 '건축'에 대한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두권의 책이 출간됐다. 저자의 국적도 책의 스타일도 다르지만 '일상 속 건축'이라는 주제에서는 동일하다.

우선 알랭 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를 비롯한 '여행의 기술' '불안' 등의 에세이를 통해 '일상의 철학자'라는 별칭을 얻은 드 보통이 펴낸 '행복의 건축'은 전문가가 아닌, 아웃사이드의 눈으로 바라본 건축 이야기다.

저자는 '건축물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담아주는 공간이자 기억과 다양한 가능성, 흠 많은 현실과 상상 속 완벽함을 담고 있는 저장소'라고 이야기한다. 또 건축물은 스스로 말을 하고, 우리가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공간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저자는 특정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놓기 보다는 도시가 통째로 스타일의 통일성을 얻었던 18세기, 엔지니어의 등장으로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부딪쳤던 시기, 이론과 기술의 발달을 넘어 건축이 문화적 가치와 아이디어로 등극한 시기 등 건축사의 흐름을 찬찬히 짚어가며 쉽게 이야기를 풀어어나간다.

재미있게 읽히는 부분은 4부 '건물의 미덕'이다. 프랑스·영국·일본 등에서 만난 건축물들을 통해 질서, 균형, 우아, 일치, 자기인식 등의 '건축의 미덕'을 이야기한다. <이레·1만4천원>

택시운전하는 건축가로 화제를 모았던 건축평론



가 이용재씨가 펴낸 '딸과 함께 떠나는 건축 여행'은 건축 답사 기이저, 쉽게 풀어 쓴 인문학 교과서다. '딸아이의 인문학 교육은 아빠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던 저자는 7년전 딸 화영이가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건축답사에 나섰다. 건축물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 담긴 역사·정치·사회·문화 등 인문학 지식들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이용재씨가 펴낸 '딸과 함께 떠나는 건축여행'에 소개된 의재미술관은 자연을 그대로 살린 친환경미술관으로 이름이 높은 곳이다.

# 신화서 성형까지 '육체의 문화사'

## 육망하는 몸-육체에 관한 100가지 이야기 루돌프 쉰다 지음

인간의 육체에 대한 관심이 최근 점점 폭증한 사례는 역사상으로 드물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장되고 있지만 인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은 찾기 어렵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유럽 민속문화 교수인 쉰다 루돌프 쉰다가 지은 '육망하는 몸-육체에 관한 100가지 이야기'는 서구의 문학, 전설,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육체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한 '육체의 문화사'이다.

당대에서 해석된 인체를 방대한 원전을 통해 들여다보으로써 고대의 육체관과 육체에 관한 신화의 출처를 추적하고 현재까지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17~18세기 의료계는 여성들을 차별했다. 대부분 남성이었던 개업의들은 여성환자가 고통을 더 잘 감내한다고 추정했다. 그들은 여성환자가 치료를 받

을 경우 남성환자를 살려내는 데 실패한 것보다 양심의 가책을 덜 느꼈다.

의사들은 죽은 사람의 신체를 해부할 경우 부활할 수 없다는 관념 때문에 메스를 잡는 것을 기피했다.

인체를 감싸고 있는 피부는 인간의 정체성을 빼앗는 형벌의 소재가 됐다. 수형자의 피부를 벗겨냄으로써 그 사람을 형체도 알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자아 정체성을 말살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중세 사람들은 처녀의 혈액과 아이들의 피가 나병에 특효가 있다고 여겼다. 11세기 유럽에서는 아멜리우스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린 친구 아미쿠스를 낮



기 위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다는 전설이 회자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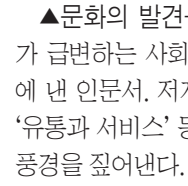
여성의 대표적 '성징'인 가슴은 늘 성망의 대상이었다. 독일 미신사전에는 '오스트리아 여성들은 풍만한 가슴을 갖고자 한다. 그래서 보름달이 비치는 밤이면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채 창가에 선다'고 소개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오른손을 올바른 것으로, 반면 왼손을 악한 신체의 일부로 인식했다. 영국의 초기 계몽주의자인 토머스 브라운은 '왼손과 오른손에' 관한 글에서 손을 차별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까지 유럽 중부의 학생들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도록 강요받았으며, 상대방이 왼손을 내미는 것을 예의 바르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다. <뿌리와 이파리·2만8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100=세계의 유명 도시 100곳을 소개한 책. 유럽이 48곳, 나머지 지역이 52곳을 차지한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이 포함돼 있다. 각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글과 건축물 등이 화보 형식으로 실렸다. <터치아트·2만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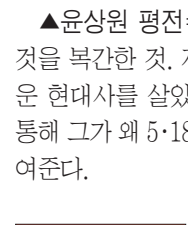
▲문화의 발견-KTX에서 찢질방까지=문화연구가 김찬호씨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한 끝에 낸 인문서. 저자는 우리 주변을 '이동과 교통', '유희와 교류', '유통과 서비스' 등 6개 범주로 나눠 30개의 공간을 통해 한국의 풍경을 짚어낸다. <문학고지식사·1만2천원>



▲김대중 잠언집-배움=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言)을 최성 국회의원이 엮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국장까지 10년 가까이 김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책 속 언어들에 '육종서신' 등 김 전 대통령의 저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다산책방·9천800원>



▲음식잡학사전=여행을 통해 다양한 음식 문화를 접한 윤덕노씨가 음식에 대한 상식을 맛깔스럽게 엮어놓았다. 중요한 자리의 식사가 약속돼 있다면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해 좌중을 휘어잡을 수 있을 듯. 6가지 테마로 70개의 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북로드·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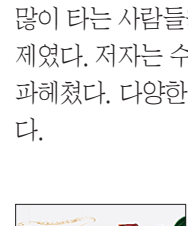
▲윤상원 평전='들불의 초상'이란 제목으로 1991년 출간된 것을 복간한 것. 저자 임낙평씨가 '개정판을 내며' 썼다. 어두운 현대사를 살았던 윤상원의 어린시절과 학생시절 등 일생을 통해 그가 왜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총을 들어야만 했는지 보여준다. <풀빛·2만원>



▲꽃잎의 말로 편지를 쓴다=200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 동안 진행한 '문학잡배원 도종환의 시배달'을 책으로 엮은 것. 네티즌에게 배달했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CD로도 제작됐다. 도종환 시인이 정성껏 고른 시인 52명의 작품이 담겨 있다. <창비·1만원>



▲소리, 말할 수 없는 마음을 듣다=최승범 전북대 국문학과 명예교수가 각종 문헌, 시조, 야사, 민담 등에 등장한 소리 107가지를 모았다. 숲 거르는 소리, 노 젓는 소리 등은 물론 꽃피는 소리 등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 '청각의 시각화'를 시도했다. <이가서·1만5천900원>



▲부끄러움=미국의 성격심리학자 카두치 박사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들을 위해 쓴 책. 부끄러움은 저자의 20년 연구 주제였다. 저자는 수천명의 상담자를 통해 부끄러움의 메커니즘을 파헤쳤다. 다양한 상담 사례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황금가지·1만5천원>



▲목수 김씨의 나무작업실=국문학과 미술사를 전공한 뒤 미술평론, 전시 기획 등을 하다 목수가 된 김진송씨의 작업기록. 10여년 동안 나무와 목수 일, 목물들에 대해 기록한 일기와 스케치, 작품 사진 등으로 구성됐다. 2001년 출간된 '목수일기'의 개정판. <시골생활·2만3천원>

## 의·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매일공개설명회 : 10시, 2시, 4시, 6시, 8시    www.epms.co.kr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합격생 PMS출신

= 2008학년도 총 1260명 모집 =

- ★ 의학전문대학원 : 가천의대, 강원대, 건국대, 부산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포천중문의대
- ★ 치의학 전문대학원 : 전남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제1회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 개설강좌**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일반생물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학) 한자능력시험 대비반

**개강: 6월 1일**

의·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대표입시브랜드

##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뒤)

227-8088, 222-8088

## KÄRCHER 독일카처 특별기획전

... 적외선 감지 지능형 로봇청소기

이제 청소는 카처 로보크리너에게 맡기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세요

- 혼자서 청소하고, 충전하고, 쓰레기까지 비웁니다. (충전시간: 10분 1시간사용, 타사제품: 1시간사용 2~3시간 충전)
- 바닥은 물론 카펫, 방과방사이, 문턱, 침대 밑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 흡입력, 최저소음, 쓰레기수집함, 충전재가동, 문턱통과, 추락방지 최고성능인정 (2006년 10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시중 판매중인 12개사 제품)

카처는 수십년간 크리닝시스템분야에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세계 70개국 우수디자인상 수상 ●

문의전화 062-655-1022    http://blog.daum.net/karcher